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저스틴 카리시오, OFS

죽음을 앞둔 프란치스코 성인은 1226년 “유언”¹을 쓰셨습니다. 성인은 이 글을 “보잘것없는 형제인 나 프란치스코가 축복받은 나의 형제 여러분에게 주는 회고요 권고와 격려이며 나의 유언”²라고 묘사하십니다. 성인은 어떻게 형제회를 시작하였는지를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내가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 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³라고 회고하십니다.

성인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사는 것은 현실이자 성사였습니다. 이 복음적 삶의 암시적 특성은 공동체적 속성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올바른 허드렛일에 종사”하며 “나그네와 순례자 같이”⁴ 가난의 삶을 사는 형제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란치스칸 운동이 성 클라라의 봉쇄 가난한 자매회와 재속의 회개하는 형제자매회로 틀을 잡은 프란치스칸 삶의 패러다임은 형제회입니다. 더 나아가 프란치스칸 형제회는 단지 문서에 기록된 이름들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재속 프란치스칸들에게 형제회는 서로에게 현존하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회 모임 참석은 프란치스칸 생활 양식에 필수입니다.

우리 회칙의 “단위 형제회는 교회법적으로 설립해야 하며, 이로써 전체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첫 번째 세포가 되고” (회칙 22 조)에 관하여 재속 프란치스칸 회칙 해설은 “단위 형제회는 전체 형제회의 살아있는 기본 유기체이고 축소된 전체 교회를 보여주는 표징”⁵이라 설명합니다. 회헌은 “형제회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주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합을 통하여 회원에게 만남과 유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회헌 53:1)라고 강조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가능치 않았던 판다믹 동안 많은 형제회가 전화 회의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였고, 몇 형제회는 아직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 모임 방법은 특별한 상황이나 정기 모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을 때만 사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최악이었던 2020년 4월 강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직접 만남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셨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한 일치를 인정하시면서도,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서 친밀하고 인간적인 “매일 주님과과의 친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회의 이상은 항상 사람들과 성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교회와 성사와 하느님 백성은 건재합니다”⁶라는 모든 프란치스칸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위형제회가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작은 교회를 보여주는 표징임을 믿으면서 재속 프란치스칸은 교황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담고 형제회가 건재함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까. 형제회는 가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함께 모일 기회를 기뻐하고 마음 설레이며 기다립시다.

¹ 아씨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프란치스코 출판사, 290.

² Ibid., 295. ³ Ibid., 293

⁴ Ibid., 294. ⁵ Conference of National Spiritual Assistants of the USA, *From Gospel to Life, The Rule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With Commentary* (National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2023), 25

⁶ www.catholicnewsagency.com/news/the-churchs-ideal-is-to-be-with-the-people-pope-says-15505 (accessed Mar 2, 2024).